

색채와 질감에 따른 남성 헤어스타일 이미지 연구

하 경 연* · 이 명 희†

한국국제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f the Image in Men's Hairstyle Depending on Hair Color and Texture

Kyung-Yun Ha* and Myoung-Hee Lee†

Dept. of Beauty Desig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7. 8. 6. 접수 : 2008. 4. 29. 채택)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images in men's hairstyle by hair color, tone, texture, and perceiver's gender,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hairstyle appropriate to seasons. A quasi-experimental method by questionnaire was used, and the experimental design was 4×3×2×2(hair color×tone×texture×perceiver's gender) factorial design. The subjects were 372 men and women in their 20s through 50s.

Five factors of men's hairstyle image were derived by factor analysis: individuality, dignity, romanticism, refinement, and activity. Black hair was perceived to be high in dignity and activity. Bright tone was perceived to be high in individuality, but low in dignity. Men's wave hair was perceived to be higher in individuality than straight hair, but lower in dignity. Perceiver's gender did not give significant influence on evaluation of all image factors. In brown, neutral tone was perceived to be higher in dignity, romanticism, and activity than dark or bright tone. In black, wave hair was perceived to be more refined than straight hair. Black hair matches with winter the most, and yellow matches with spring the most. In terms of tone, dark tone matches with winter; neutral tone matches with autumn; bright tone matches with summer. The results of this study verified that hair color and texture affect men's image perception, and matching hair colors are associated with seasons.

Key words: hairstyle(헤어스타일), hair color(헤어컬러), hair tone(헤어톤), hair texture (헤어질감), image(이미지).

I. 서 론

오늘날 남성 헤어스타일 연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패션에 민감한 남성들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과감한 헤어컬러와 질감 표현 등을 통해 감성적

이고 개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헤어스타일에 의한 이미지는 개인의 얼굴과 두상 조건, 성별, 연령 그리고 계절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화로 완성되며, 이러한 조건들은 헤어 디자인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헤어 디자인 요소에서 색채와 질감은 의미 있는 표현 요소로서 어

* 교신저자 E-mail : mhlee@sungshin.ac.kr

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헤어스타일의 느낌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며, 지각자 변인에 따라서도 지각의 차이가 있다.

헤어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헤어 색채와 헤어스타일 관련 연구¹⁾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여성 헤어스타일에 집중되고 있으며, 헤어 색채와 질감에 의해 이미지 변화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성 헤어스타일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헤어스타일의 색채와 질감이 남성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헤어 색상 및 헤어 톤과 계절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의 헤어 색상, 톤, 질감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파악하고, 계절에 적합한 헤어 색채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소비자에게 색채와 질감에 의해 형성되는 바람직한 헤어스타일 이미지와 심미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미용학 연구 분야의 이론적 토대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헤어 색채와 질감에 대한 이미지 지각의 요인구조를 조사한다.

둘째, 지각자의 성별, 헤어 색상, 톤, 질감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을 파악한다.

셋째, 계절에 적합한 헤어 색상과 헤어 톤의 특성을 알아본다.

II. 선행 연구 고찰

- 1) 김양휴,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윤지성,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은지, “모발색이 체형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서윤경, “여대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헤어 컬러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고영주, “헤어칼라가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헤어칼라 선호도와와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재숙, 류지원, “헤어길이와 헤어컬러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한국의류학회지* 28권 9/10호(2004), pp. 1320-1328; 이명희, 송원영,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헤어컬러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4권 6호 (2006), pp. 945-955.
- 2) 田原二美, *HMヘアモード エデュケーション ムック* (東京: 株式會社女性モード社, 2004), pp. 9-10; Donna Fujii,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publishing Co, 1991), p. 12.
- 3) B. Berelson and P. Salter, “Majority and Minority Americans: An Analysis of Magazine Fic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10 (1946), pp.168-90, cited by M. J. Horn and L. M. Gurel. *The Second Skin(3rd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1981), pp. 165-166.
- 4) D. J. Kyle and H. I. M. Mahler, “The Effects of Hair Color and Cosmetic Use on Perceptions of a Female's Ab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0 (1996), pp. 447-455.
- 5) 윤지성, *Op. cit.*, pp. 100-101.
- 6) 이명희, 송원영, *Op. cit.*, pp. 945-955.

1. 헤어 색채 이미지

헤어 색채는 그 사람의 얼굴과 가장 가까이에서 시선을 집중시킴으로 한 사람의 전체적인 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²⁾. 헤어 디자인에서의 색채 변화는 크게 염색, 탈색, 코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가지 중 가장 일반적으로 시술되어지는 것이 염색이라고 할 수 있다. 헤어 염색을 위한 색채 계획에서 색의 속성 즉, 색상·명도·채도를 모발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헤어 색채 이미지 관련 연구에서 Berelson과 Salter³⁾는 매력적인 색상과 금발머리는 일반적으로 소설 등장인물들 중 영웅의 이미지와 관련되며, 짙은 머리와 거무스런 피부는 악한들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Kyle와 Mahler⁴⁾의 연구에서는 검은 머리 여성이 붉은색 및 금발 머리 여성보다 능력이 높게 지각되었고, 급여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윤지성⁵⁾은 여대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검정색은 갈색이나 붉은색에 비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고, 갈색과 붉은색은 진보적, 매력적,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이명희, 송원영⁶⁾은 여성의 헤어컬러에서 검정색은 품위가 높게 나타났고, 밝은 갈색은 사교성과 매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진갈색과 검정색은 여성성이 높으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은지⁷⁾는 헤어 염색이 커트나 퍼머넌트 등의 다른 시술보다는 기분전환이나 이미지 변신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모발색의 변화가 체형의 착시와 이미지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재숙, 이혜숙, 이경진⁸⁾은 헤어스타일이 동일하여도 컬러의 변화로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헤어컬러의 변화가 커플들의 인상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재숙, 류지원⁹⁾은 남성 헤어컬러에 관하여 연구하였는데, 노랑색이나 붉은색은 현시성이 높았고, 갈색과 검은 갈색인 경우 짧은 머리가 사교적 이미지가 높게 지각되었다. 또한, 검은 갈색과 갈색의 약간 짧은 머리는 역능성 이미지가 높게 지각되었는데, 이것은 남성들의 기본 헤어컬러가 교양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어 다른 색보다 역능적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하경연¹⁰⁾은 붉은색, 노랑색, 녹색, 갈색, 검정색 계열의 5가지 색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남자는 검정색 계열을, 여자는 갈색 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가 들수록 검정색 계열을, 나이가 젊을수록 갈색 계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색을 계절과 관련지어 볼 때¹¹⁾ 봄 타입의 헤어색은 노란빛이 감도는 연한 갈색, 노란빛이 감도는 짙은 다갈색으로, 여름 타입은 회색빛이 감도는 짙은 갈색, 회색빛이 감도는 회갈색, 가을 타입은 노란빛이 감도는 짙은 갈색이나 황갈색, 겨울 타입은 푸른빛이 감도는 갈색과 푸른빛이 감도는 검정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은지¹²⁾는 헤어컬러의 계절별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봄·여름에는 주로 밝은 톤의 색상, 가을·겨울에는 어두운 톤 색상의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계절에 따라 모발색 선호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2. 헤어 질감 이미지

헤어디자인에서 질감 표현은 컷과 퍼머넨트 시술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퍼머넨트 시술에 의한 질감 처리가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준다. 직모일 경우 웨이브를 주어 우아한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고, 곱슬머리의 경우 직모로 펴서 찰랑거리는 모발 표현으로 순수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¹³⁾. 헤어 질감은 개인의 개성이나 트렌드 등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며, 변화된 질감은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창조되어 모델의 이미지를 달리 나타낼 수 있다.

헤어 질감 이미지에 대한 연구에서 이영아, 서미아¹⁴⁾는 네크라인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긴 웨이브나 단발 웨이브 스타일은 개성적이며, 여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며, 긴 직모와 단발 직모 스타일은 단정한 이미지와 귀엽고 청순한 이미지로 지각되어 모발의 질감이 이미지 지각에 변화를 준다고 하였다. 이명희, 송원영¹⁵⁾은 퍼머 여부가 품위, 사교성, 매력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 생머리가 퍼머넨트 웨이브보다 품위있게 평가되었고, 퍼머넨트 웨이브는 사교성과 매력성이 높게 지각된다고 하였다. 문영보, 이인자¹⁶⁾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이트 헤어의 세미 롱 헤어스타일은 지적인 인상을, 웨이브진 헤어의 세미 롱 헤어스타일은 사회적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진, 정해선, 강경자¹⁷⁾는 헤어길이를 숏(short), 미디움(medium), 롱(long)으로 구분하고, 헤어 질감을 스트레이트와 웨이브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미디움 길이의 웨이브는 강렬하고 대담한 인상을 주며, 미디움 길이라도 스트레이트는 가장 무난하고 소심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어 모발 길이보다는 헤어 질감이 이미지 지각에 더 영향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7) 이은지, *Op. cit.*, p. 47.

8) 김재숙, 이혜숙, 이경진, “커플들의 헤어컬러가 인상형성과 귀인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6권 1호 (2003), pp. 85-96.

9) 김재숙, 류지원, *Op. cit.*, pp. 1320-1328.

10) 하경연, “헤어컬러 선호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1권 1호 (2003), pp. 95-104.

11) 한국케엠케색채연구소, *Personal Color System Work Book*,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5), pp. 4-5.

12) 이은지, *Op. cit.*, pp. 30.

13) 김춘일 외 4인, *Personal Wave Design*, (서울: 도서출판 예림, 2005), p. 20.

14) 이영아, 서미아, *Op. cit.*, pp. 13-25.

15) 이명희, 송원영, *Op. cit.*, pp. 945-955.

16) 문영보, 이인자, “외모변인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20권 (1993), pp. 17-30.

17) 정수진, 정해선, 강경자, “모자유형과 헤어스타일 및 길이변화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권 3호 (2005), pp. 129-144.

이상의 헤어 질감 연구는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헤어 질감은 개성, 청순함, 품위, 매력성, 사교적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에도 헤어 질감은 헤어 색상 및 헤어 톤과 관련되어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준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설계는 4×3×2×2(헤어 색상×톤×질감×지각자의 성별)의 설계를 사용하였다.

자극물의 모델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선정하였다. 즉 타원형 얼굴에 해당되는 20대 남성 모델 후보자 5명을 택하여 얼굴사진을 촬영한 후 이 사진(4×6 cm 크기)을 판단집단에게 보여주었다. 판단집단에게 헤어스타일 이미지 평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얼굴을 1에서 3순위로 기입하게 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1명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판단집단은 패션 관련 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 40명이었다. 그 결과 20대 남성 모델 1명이 선정되었다.

자극물의 헤어 색채와 질감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용실의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즉, 서울, 부산, 진주의 대형 미용실 15곳의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 최근 미용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헤어 색 경향을 조사하였다. 세 가지 톤 변화는 다양한 헤어 색상들이 톤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염모제 시장의 제품 경향에 근거하였다. 그 결과 헤어 색채는 검정, 노랑, 오렌지색, 브라운색의 4가지 색을, 헤어 톤은 어두운, 중간, 밝은 톤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헤어 질감은 스트레이트와 굽은 웨이브의 2가지 형태를 사용하였다. 자극물은 한 명의 모델에게 스트레이트와 웨이브의 두 가지 질감의 헤어스타일을 따로 하게 한 후, 사진(8×5cm)을 각각 촬영하였으며, 포토샵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자극물의 색채를 변화시켰다. 모델은 라운드 네크라인의 흰색 티셔츠를 착용하였고, 배경은 회색으로 통일시켰다. 본 작업으로 얻어진 자극물은 총 24개의 컬러 출력물이었다.

이미지 평가에 사용된 형용사는 자유기술식 응답과 선행 연구¹⁸⁾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으며,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유기술식 응답은 남녀 대학생 각각 50명씩 100명에게 자극물을 제시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1명의 피험자가 3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으며, 자극물을 보고 연상되는 모든 형용사를 제한 없이 자유응답식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용어 중에서 헤어 디자인 평가에 부적절한 형용사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형용사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계절에 적합한 헤어 색채와 질감에 관한 질문 2문항과 인구 통계적 변인으로서 성별과 연령을 조사하는 내용 2문항이 포함되었다.

2.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 부산, 진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50대 남녀로서 성별과 거주지를 고려하여 372명을 임의표집하였다. 각 연구대상자를 24개의 자극물 중 3개의 자극물에 무선배치하였다. 그 결과 1개의 자극물에 44~48명이 반응하였으며, 총 1,101개의 이미지 평가 결과를 얻었다. 자료수집 시기는 2005년 10월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자극물 평가에서 측정도구의 내적타당도와 신뢰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평균의 차이와 변인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헤어스타일 이미지 지각 분류

18) 배현주, “남성 정장용 양모 직물의 질감 이미지와 선호도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유금화, “여성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윤지성,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한유정, “웨딩헤어 관련 코디네이션: 이미지 지각 형성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이미연, 이명희,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 1보):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2000), pp. 724-735.

남성의 헤어색채와 질감의 이미지 지각을 평가하는 형용사 28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을 선택한 결과 적합한 요인의 수는 5개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 1은 독특한, 개성적인 등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2는 점잖은, 예의바른 등이 포함되어 품위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낭만적인, 부드러운 등이 포함되어 낭만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도회적인, 세련된 등이 포함되어 세련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캐주얼한, 내추럴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변량의 %는 67.39%였고, 요인의 고유치는 1.60 이상이었다. 5개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 값을 요인의 순서대로 보면 0.926, 0.929, 0.769, 0.863, 0.613이었다. 본 연구에서 개성, 품위성, 활동성 요인의 도출은 임남영, 강승희¹⁹⁾의 연구와 일치하였고, 세련성 요인은 윤소영²⁰⁾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2. 헤어 색상, 톤, 질감,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

헤어 색상, 톤, 질감,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4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주효과를 보면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모든 이미지 지각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헤어 색상과 헤어 톤에 따라 개성, 품위성, 낭만성, 활동성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의 차이를 보면 검정색은 개성이 낮았으나 품위성과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오렌지색은 매우 개성적이면서 품위성과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노란색은 활동성과 낭만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브라운색은 개성, 품위, 낭만성, 활동성이 중간 수준이었다. 이와

<표 1> 헤어스타일 이미지의 요인분석

요인	항목	요인부하량
요인 1. 개성	독특한	0.84
	개성적인	0.84
	대담한	0.77
	눈에 띄는	0.75
	강렬한	0.74
	독립적인	0.68
	화려한	0.68
	외향적인	0.68
	적극적인	0.67
	진취적인	0.65
	자신감있는	0.64
하이테크한	0.58	
고유치 = 6.84, 변량 = 24.43%		
요인 2. 품위성	점잖은	0.86
	예의바른	0.84
	차분한	0.83
	단정한	0.80
	지적인	0.74
	수수한	0.73
	품위있는	0.70
평범한	0.64	
고유치 = 5.81, 변량 = 20.74%		
요인 3. 낭만성	낭만적인	0.72
	로맨틱	0.69
	따뜻한	0.68
	부드러운	0.67
고유치 = 2.69, 변량 = 9.59%		
요인 4. 세련성	도회적인	0.83
	세련된	0.81
고유치 = 1.94, 변량 = 6.92%		
요인 5. 활동성	캐주얼한	0.83
	내추럴	0.65
고유치 = 1.60, 변량 = 5.72%		

같은 결과는 검정색 헤어가 품위가 높았으며²¹⁾, 검은 머리가 붉은색 및 금발 머리보다 능력있게 평가되었던²²⁾ 선행 연구와 유사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은지²³⁾

19) 임남영, 강승희,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2003), pp. 340-351.

20) 윤소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33-34.

21) 이명희,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복식문화연구 12권 6호 (2004), pp. 971-983.

〈표 2〉 헤어 색상, 톤, 질감,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차이

변량원		<i>df</i>	개성 <i>F</i>	품위성 <i>F</i>	낭만성 <i>F</i>	세련성 <i>F</i>	활동성 <i>F</i>	
주효과	색상(A)	3	18.89***	86.17***	12.88***	0.28	15.33***	
	톤(B)	2	37.88***	88.41***	29.65***	0.16	26.33***	
	질감(C)	1	6.97**	51.27***	19.38***	0.22	0.40	
	성별(D)	1	0.28	0.34	1.20	1.02	1.32	
2원상호작용	A×B	6	2.56*	8.40***	5.75***	1.11	5.80***	
	A×C	3	18.01***	25.66***	5.60**	4.19**	2.28	
	A×D	3	1.01	1.29	0.70	1.12	1.22	
	B×C	2	1.60	0.17	3.01*	0.01	0.60	
	B×D	2	0.32	2.06	0.02	0.43	0.56	
	C×D	1	0.38	0.17	2.53	1.36	0.11	
3원상호작용	A×B×C	6	10.53***	15.22***	7.69***	1.81	5.79***	
	A×B×D	6	0.76	0.18	0.18	0.70	0.52	
	A×C×D	3	1.08	1.35	0.85	0.42	1.11	
	B×C×D	2	2.25	2.73	0.55	0.24	0.26	
4원상호작용	A×B×C×D	6	1.08	0.84	0.49	0.64	0.52	
MCA	변인	속성	<i>N</i>	<i>M</i>	<i>M</i>	<i>M</i>	<i>M</i>	<i>M</i>
	색상	검정	276	3.79 c	4.85 a	4.22 a	4.20	5.02 a
		오렌지	278	4.67 a	3.09 c	3.64 b	4.09	4.17 c
		노란	276	4.19 b	3.59 b	4.38 a	4.09	4.90 a
		브라운	271	4.32 b	3.44 b	4.13 a	4.06	4.60 b
	톤	밝은	372	4.74 a	2.98 b	3.71 c	4.11	4.20 c
		중간	367	3.90 b	4.22 a	4.54 a	4.15	5.04 a
		어두운	362	4.08 b	4.03 a	4.03 b	4.07	4.79 b
	질감	스트레이트	552	4.12	4.05	4.29	4.14	4.71
		웨이브	549	4.37	3.43	3.89	4.08	4.63
	성별	남자	567	4.23	3.76	4.14	4.17	4.62
		여자	534	4.26	3.72	4.05	4.05	4.73

* $p < 5\%$, ** $p < 1\%$, *** $p < 0.1\%$.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p < 0.05$).

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검정색 헤어가 활동성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검정색 헤어에 대한 활동성 평가가 남녀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헤어 톤에 따른 차이에서 밝은 톤은 개성이 매우

높았으나, 품위성, 낭만성,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어두운 톤은 품위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중간 톤은 개성은 낮았으나 낭만성과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밝은 갈색이 진 갈색보다 개성이 더 높았던 선행 연구²⁴⁾를 지지하였다.

22) D. J. Kyle and H. I. M. Mahler, *Op. cit.*, pp. 447-455.23) 이은지, *Op. cit.*, pp. 46-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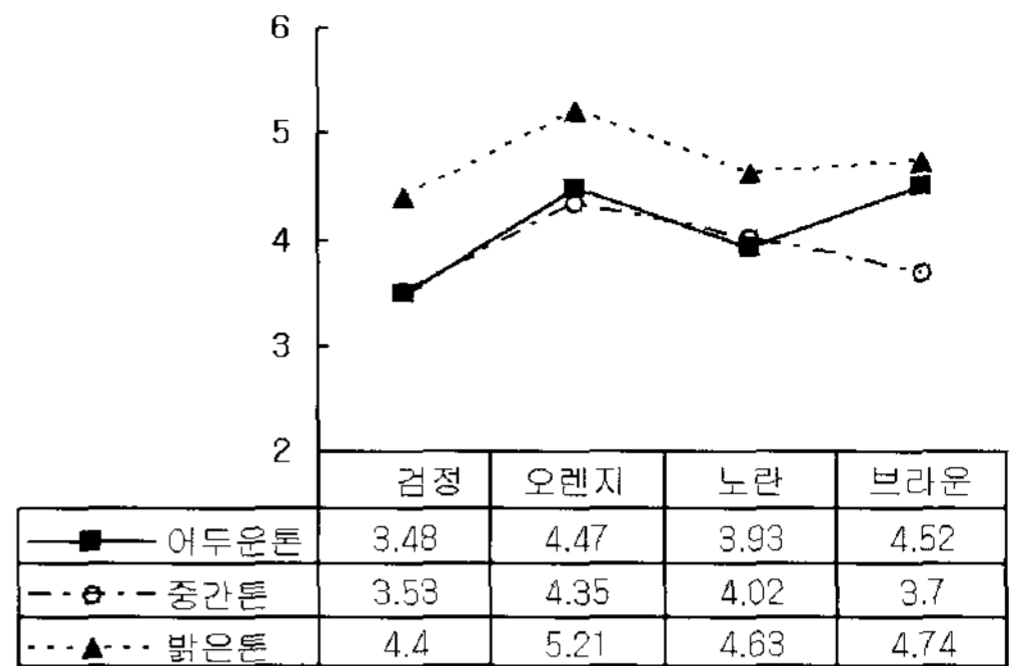
헤어 질감에 따라 개성, 품위성, 낭만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세련성과 활동성 요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평균의 차이를 보면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웨이브 헤어가 더 개성적으로 지각되었으며, 웨이브 헤어는 품위와 낭만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오인영, 김인숙²⁵⁾, 이명희²⁶⁾의 선행 연구에서 스트레이트 헤어가 웨이브형보다 품위가 높게 평가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남녀 모두 스트레이트 헤어는 웨이브보다 더 품위있게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의 헤어 질감, 색상 및 톤의 변화는 지각자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성, 품위, 낭만성 평가에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값을 볼 때 헤어 색상 및 톤은 헤어 질감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이것은 선행 연구²⁷⁾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남성의 헤어 색채 이미지는 헤어 질감 이미지보다 이미지 평가에 더 영향력 있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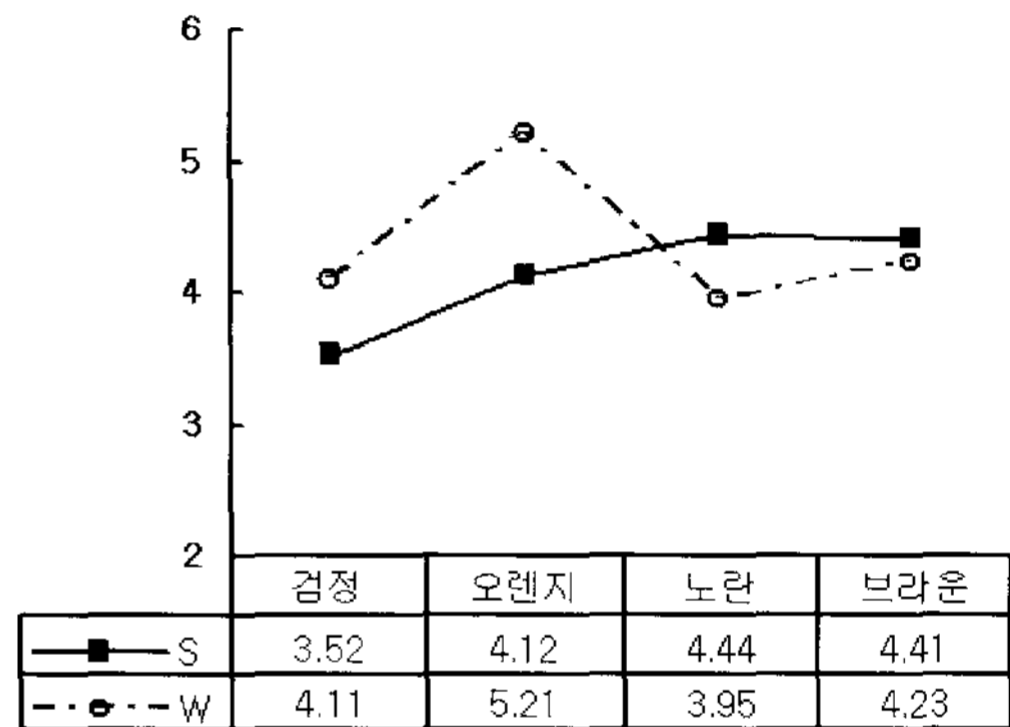
〈표 2〉에서 볼 때 4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없었으나, 요인에 따라 2개의 독립변인과 3개의 독립변인은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그림 1〉에서 개성 평가의 헤어 색상과 톤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를 살펴보면, 검정, 오렌지, 노란색은 어두운 톤과 중간 톤이 밝은 톤보다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브라운색은 중간 톤이 밝은 톤과 어두운 톤보다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두운 톤의 브라운색보다 중간 톤의 브라운색이 부드럽고, 평범한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2〉에서 검정색과 오렌지색은 스트레이트 헤어가 웨이브보다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노란색은 웨이브 헤어가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개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렌지색의 웨이브 헤어가 가장 개성적이고 검정색의 스트레이트 헤어는 개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1〉 헤어 색상과 톤에 따른 개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S: 스트레이트 W: 웨이브

〈그림 2〉 헤어 색상과 질감에 따른 개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검정색이 헤어 디자인에서 기본 색에 속하며, 일반적인 색상으로서 차분한 스트레이트 헤어 질감과 조화로 평범한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선행 연구²⁸⁾에서 오렌지색 헤어가 가장 개성적으로 평가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림 3〉에서 품위성 평가의 헤어 색상과 톤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를 볼 때 오렌지색과 노란색은 밝은 톤이 어두운 톤 및 중간 톤보다 품위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브라운색은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이 중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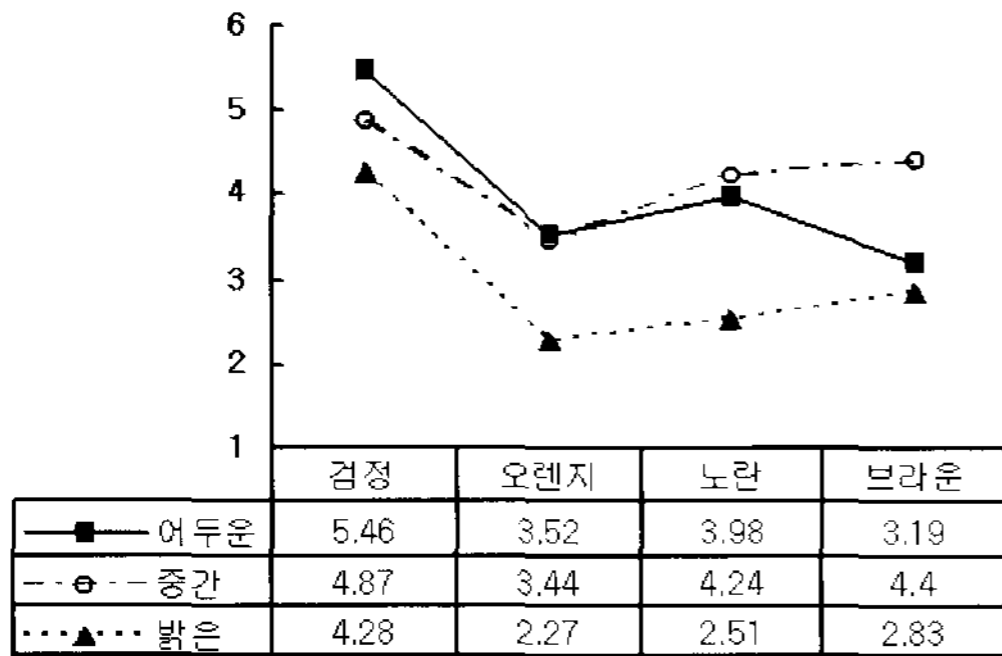
24) 이명희, *Op. cit.*, pp. 971-983.

25) 오인영, 김인숙,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뉴스 여자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권 11호 (2006), pp. 1636-1647.

26) 이명희, *Op. cit.*, pp. 971-983.

27) 이은지, *Op. cit.*, p. 47.

28) *Ibid.*, p.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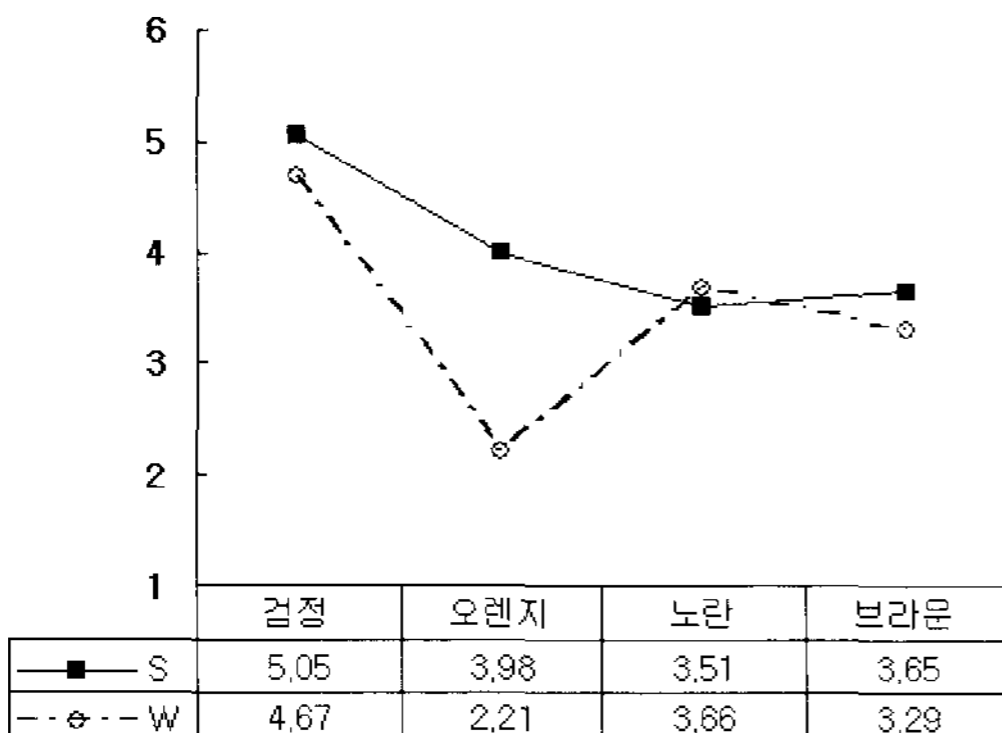


<그림 3> 헤어 색상과 톤에 따른 품위성 평가의 상호 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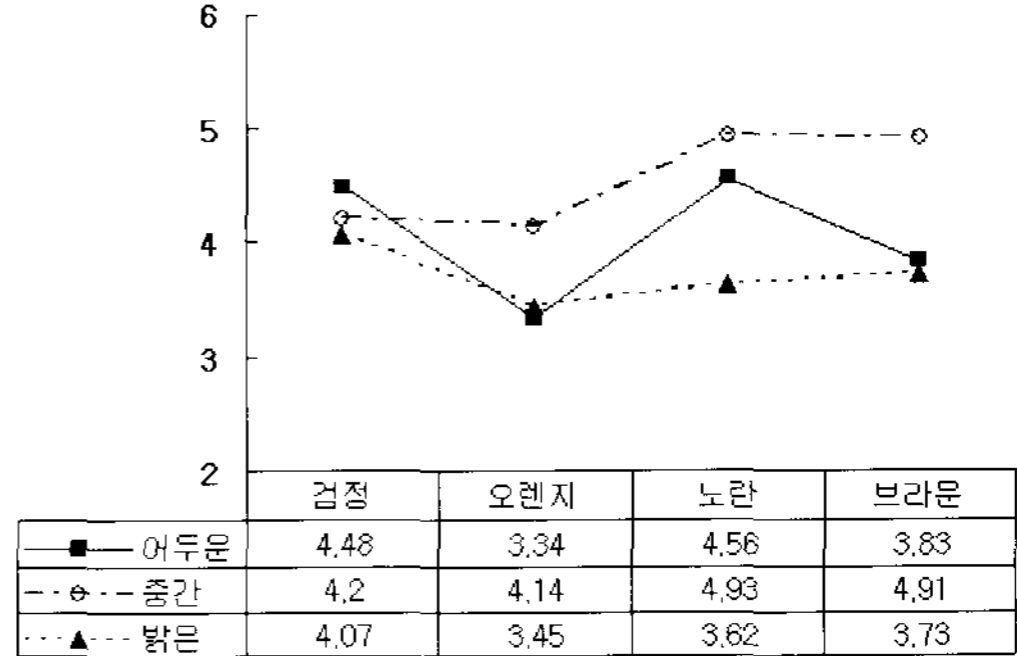
톤보다 품위성이 낮았다. 즉, 브라운색은 중간 톤이 가장 품위가 높았다.

<그림 4>에서 오렌지색은 웨이브가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두드러지게 품위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오렌지색 자체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색이며, 율동감있는 웨이브 질감의 오렌지색 헤어는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더욱 인위적으로 느끼게 됨으로써 품위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고 해석된다.

<그림 5>에서 낭만성에 대한 상호작용형태를 볼 때 브라운색은 어두운 톤 및 밝은 톤보다 중간 톤이 매우 더 낭만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브라운색은 헤어 색채의 중간색에 속하는 색이므로 어두운 톤과 밝은 톤보다 중간 톤과 조화되어 부드러운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더욱 낭만적으로 지각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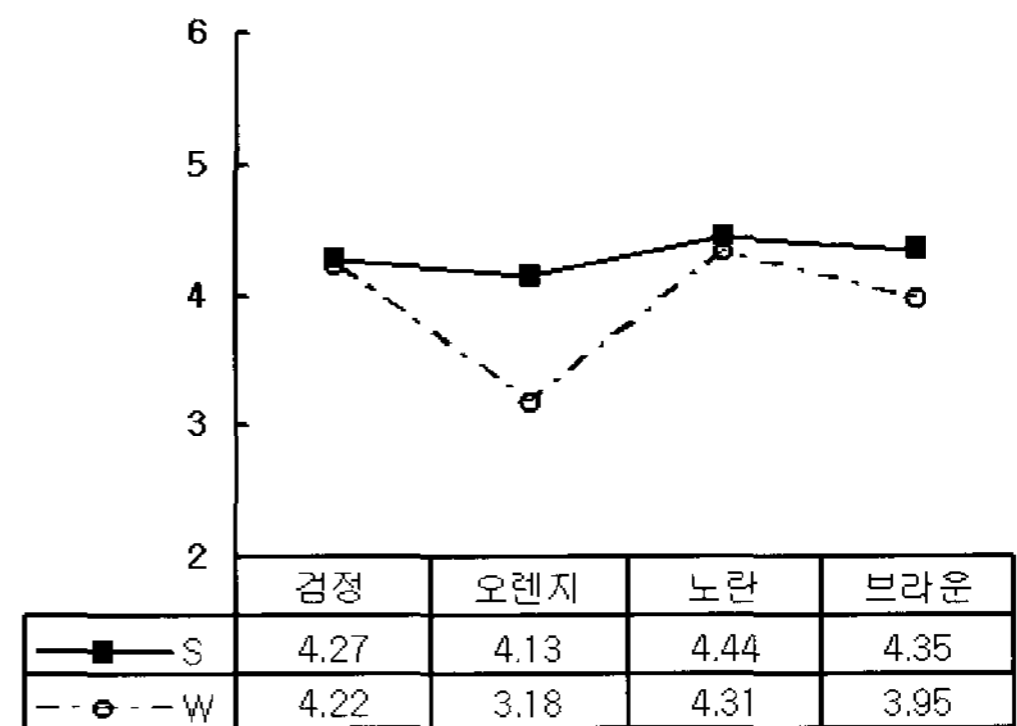
<그림 4> 헤어 색상과 질감에 따른 품위성 평가의 상호 작용형태.



<그림 5> 헤어 색상과 톤에 따른 낭만성 평가의 상호 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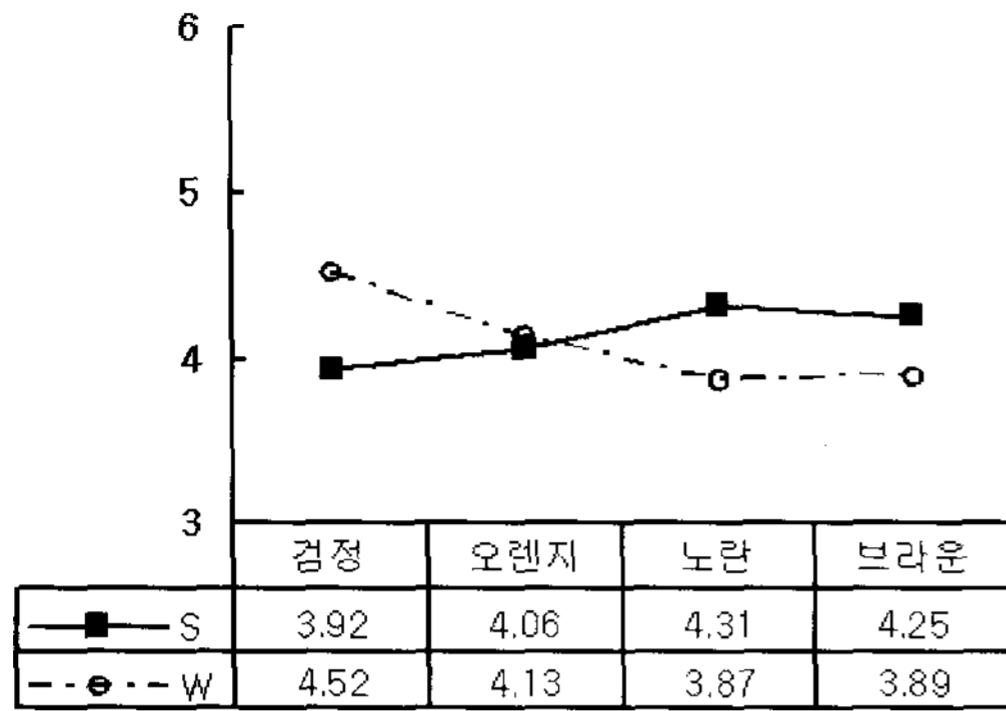
<그림 6>에서 오렌지색과 브라운색의 경우 웨이브가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낭만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브라운색과 오렌지색은 웨이브인 경우, 율동감이 더해짐으로써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차분한 느낌의 스트레이트 헤어 질감과 조화될 때는 더욱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지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본다.

<그림 7>에서 세련성의 헤어 색상과 헤어 질감에 따른 상호작용형태를 살펴보면, 검정색은 스트레이트 헤어가 웨이브 헤어보다 세련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브라운색과 노란색은 웨이브가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세련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즉, 브라운색의 스트레이트 헤어는 일반적으로 도회적인 스타일로 인지되기 때문에 세련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



S: 스트레이트 W: 웨이브

<그림 6> 헤어 색상과 질감에 따른 낭만성 평가의 상호 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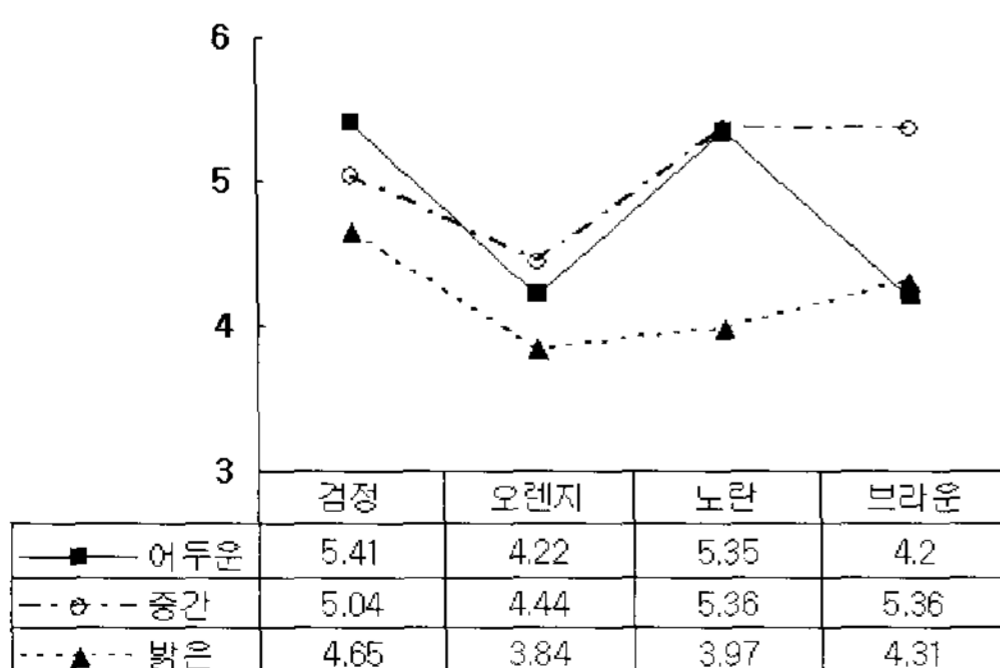


<그림 7> 헤어 색상과 질감에 따른 세련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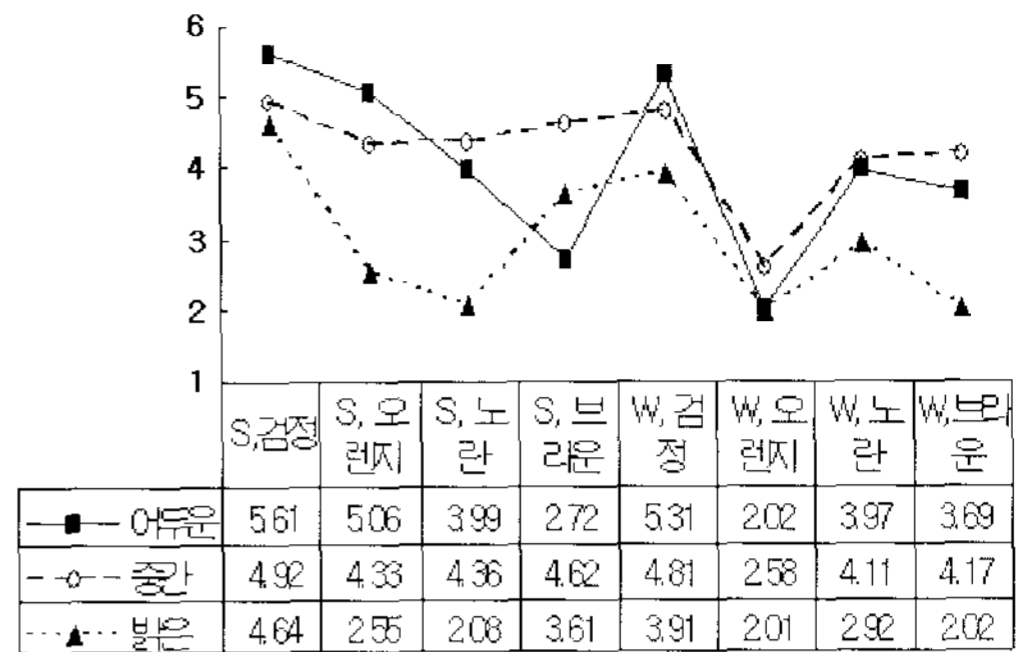
된다.

<그림 8>에서 활동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검정색은 중간 톤과 밝은 톤이 어두운 톤보다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노란색은 밝은 톤이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브라운색은 어두운 톤과 밝은 톤이 중간 톤보다 활동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주 집단이 검정색은 더 어둡게, 브라운색은 자연스러운 느낌의 중간 톤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9>에서 헤어 색상, 톤, 질감의 3개 변인에 따른 품위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보면, 어두운 톤의 검정색 스트레이트 헤어와 웨이브 헤어가 모두 품위성이 높게 나타났다. 밝은 톤의 노란색 스트레이트, 어두운 톤의 오렌지색 웨이브 헤어는 품위성 평가가 전체적으로 낮게 지각되었다. 즉, 웨이브 헤어는 유색 계열의 헤어가 품위성이 매우 낮게 평가



<그림 8> 헤어 색상과 톤에 따른 활동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9> 헤어 색상, 톤, 질감에 따른 품위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

되며, 남성 헤어가 어두운 톤의 검정색일 경우에는 스트레이트와 웨이브 모두 품위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질감보다 색채가 더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어 색상, 톤, 질감의 3개 변인에 따른 개성 평가의 상호작용형태를 조사한 결과, 밝은 톤인 경우 오렌지색 스트레이트 헤어와 브라운색 웨이브 헤어가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어두운 톤의 검정색 스트레이트 헤어는 개성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성 평가의 3개 변인에 따른 상호작용형태에서는 중간 톤의 브라운색으로서 스트레이트 헤어는 낭만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어두운 톤의 오렌지색과 밝은 톤의 브라운색으로서 웨이브 헤어는 낭만성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활동성 평가의 3개 변인에 따른 상호작용형태에서는 어두운 톤의 검정색 웨이브 헤어가 활동성이 가장 높았고, 밝은 톤의 오렌지색 스트레이트 헤어는 활동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또한, 밝은 톤의 노란색 스트레이트 헤어와 밝은 톤의 브라운색 웨이브 헤어도 활동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3. 헤어 색상 및 톤과 계절과의 관계

헤어 색상, 톤과 어울리는 계절과의 관계를 χ^2 검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헤어 색상 및 톤과 어울리는 계절과의 관계는 모두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 Column %를 볼 때 겨울은 검정색이 가장 어울리는 색으로 평가되었고(64.5%), 노란색은 봄에, 브라운색은 여름과 가을에 어울리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표 3> 헤어 색상, 톤과 적합한 계절과의 관계

구분		적합한 계절				계	χ^2
		봄	여름	가을	겨울		
색상	검정	12(10.1)	25(10.3)	28(7.9)	202(64.5)	267(26.0)	364.28*** df=9
	오렌지	26(21.8)	64(26.4)	97(27.4)	55(17.6)	242(23.5)	
	노란	44(37.0)	69(28.5)	116(32.8)	32(10.2)	261(25.4)	
	브라운	37(31.1)	84(34.7)	113(31.9)	24(7.7)	258(25.1)	
	계	119(100.0)	242(100.0)	354(100.0)	313(100.0)	1,028(100.0)	
톤	어두운	27(22.7)	68(28.1)	112(31.6)	135(43.1)	342(33.3)	102.80*** df=6
	중간	45(37.8)	45(18.6)	167(47.2)	92(29.4)	349(33.9)	
	밝은	47(39.5)	129(53.3)	75(21.2)	86(27.5)	337(32.8)	
	계	119(100.0)	242(100.0)	354(100.0)	313(100.0)	1,028(100.0)	

*** $p < 0.001$, ()=col. %.

노란색은 고명도의 색으로 밝은 이미지를 주어 봄의 화사한 느낌을 잘 나타내는 반면, 가을에는 브라운 색이 계절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헤어색의 명도와 어울리는 계절과의 관계는 여름에는 밝은 톤이 53.3%, 가을에는 중간 톤이 47.2%로 가장 어울린다고 평가되었으며, 겨울에는 어두운 톤이 43.1%로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에는 중간 톤과 밝은 톤이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어색의 명도와 어울리는 계절과의 관계는 여름에는 밝은 톤이 53.3%, 가을에는 중간 톤이 47.2%로 가장 어울린다고 평가되었으며, 겨울에는 어두운 톤이 43.1%로 가장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에는 중간 톤과 밝은 톤이 비교적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두운 톤은 겨울에, 중간 톤은 가을에, 밝은 톤은 여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남성의 헤어 색상, 톤, 질감과 지각자의 성별에 따른 헤어스타일 이미지를 파악하고, 계절에 적합한 헤어색채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피험자는 20~50대 성인 남녀 372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헤어스타일 이미지 평가에 대한 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5개 요인이 도출되어 개성, 품위성,

낭만성, 세련성, 활동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개성, 품위성, 낭만성은 헤어 색상, 톤, 질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활동성은 헤어 색상과 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검정색은 개성이 낮았으나 품위와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오렌지색은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남자의 웨이브 헤어는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품위가 낮았으나,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헤어 톤에 따른 차이에서 밝은 톤은 개성이 높았으며, 어두운 톤은 품위가 높았고, 중간 톤은 낭만성과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지각자의 성별은 남성의 헤어스타일 이미지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셋째, 개성, 품위성, 낭만성 요인은 색상과 톤, 색상과 질감의 2개 변인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활동성은 색상과 톤에 따라, 낭만성은 톤과 질감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오렌지색은 웨이브가 스트레이트 헤어보다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품위와 낭만성이 두드러지게 낮게 평가되었다. 브라운색은 중간 톤 브라운색이 어두운 톤이나 밝은 톤보다 품위, 낭만성, 활동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검정색은 웨이브가 스트레이트보다 더 세련된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브라운색과 노란색은 스트레이트 헤어가 웨이브 헤어보다 더 세련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개성, 품위성, 낭만성, 활동성은 헤어 색상, 톤, 질감의 3개 독립변인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효

과가 있었다. 밝은 톤인 경우, 오렌지색 스트레이트 헤어와 브라운색 웨이브 헤어는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어두운 톤의 검정색 스트레이트 헤어는 개성 평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어두운 톤의 검정색 스트레이트 헤어는 품위가 높았고, 중간 톤의 브라운색 스트레이트 헤어는 낭만적으로 평가되었다. 어두운 톤의 검정색 웨이브 헤어는 활동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밝은 톤의 오렌지색 스트레이트 헤어는 활동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다섯째, 헤어 색상 및 톤과 어울리는 계절의 평가는 유의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겨울에는 검정색 헤어가 가장 잘 어울리고, 노란색은 봄에, 브라운색은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에 무난하게 어울리는 색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어두운 톤은 겨울에, 중간 톤은 가을에, 밝은 톤은 여름에 어울리며, 봄에는 중간 톤과 밝은 톤이 비교적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성의 헤어 질감, 색상 및 톤은 지각자에게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성, 품위, 낭만성 평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남성의 헤어 색채 이미지는 헤어 질감 이미지보다 이미지 평가에 더 영향력 있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남성 헤어 디자인 중 어두운 톤의 검정 스트레이트 헤어가 가장 품위 있고, 어두운 톤의 검정색 웨이브 헤어는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오렌지색 웨이브 헤어는 가장 개성적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헤어 색채와 질감은 남성 외모 이미지를 평가하는 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계절별로 어울리는 헤어색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헤어스타일 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와 질감의 변화에 의해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외모의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극물 제작시 실험대상자를 20대 남자로 한정하였다는 것과, 사진의 헤어 색채가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헤어 색채와 질감이 개인의 외모와 연령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수를 한 명으로 한정하여 서로 다른 대상에 적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미지 지각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연령과 얼굴형을 다양화 시

켜 자극물을 제작함으로써 지각대상자를 확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폭 넓은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색채와 질감 변화에 따른 선호도와 얼굴 형태와 헤어 디자인의 조화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시 된다.

참고문헌

- 고영주 (2003). “헤어칼라가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헤어칼라 선호도와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휴 (1996). “패션 헤어스타일의 선호와 성격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숙, 류지원 (2004). “헤어길리와 헤어컬러가 남성의 패션이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한국 의류학회지 28권 9/10호.
- 김재숙, 이해숙, 이경진 (2003). “커플들의 헤어컬러가 인상형성과 귀인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16권 1호.
- 김춘일 박성희, 유유성, 최연희, 최영진 (2005). *Personal Wave Design*. 서울: 도서출판 예림.
- 문영보, 이인자 (1993). “외모변인이 지적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복식 20권.
- 배현주 (2003). “남성 정장용 양모 직물의 질감 이미지와 선호도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윤경 (2003). “여대생의 성격 유형에 따른 헤어스타일과 헤어 컬러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인영, 김인숙 (2006).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유형에 따른 TV뉴스 여자 앵커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권 11호.
- 유금화 (2002). “여성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소영 (2000).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성 (2000).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4). “지각자의 사회적 가치와 헤어스타일 변화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복식문화연구

- 12권 6호.
- 이명희, 송원영 (2006). “여성의 헤어스타일과 헤어 컬러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4권 6호.
- 이미연, 이명희 (2000). “웨딩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지각자 성별에 따른 인상형성 연구(제 1보): 실루엣과 네크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4권 5호.
- 이은지 (2002). “모발색이 체형 및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 정수진, 정해선, 강경자 (2005). “모자유형과 헤어스타일 및 길이변화에 따른 모자착용자의 인상평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권 3호.
- 하경연 (2003). “헤어컬러 선호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1권 1호.
- 한국케엠케색채연구소 (2005). *Personal Color System Work Book*. 서울: 도서출판 예림.
- 한유정 (2002). “웨딩헤어 관련 코디네이션: 이미지 지각 형성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田原二美 (2004). *HMヘアモード エデュケーション ムック*. 東京: 株式會社女性モード社, pp. 9-10.
- Fujii, Donna (1991). *Color with Style*. Tokyo: Graphic-Sha Publishing Co.
- Horn, M. J. and L. M. Gurel (1981). *The Second Skin (3rd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 Kyle, D. J. and H. I. M. Mahler (1996). “The Effects of Hair Color and Cosmetic Use on Perceptions of a Female's Abilit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20.